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후원미사는 21일, 11월 후원미사는 18일, 12월 후원미사는 16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9년 8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5,303,860	전월아월금	70,000
지 로	2,062,360	우리은행	5,179,000
국민은행	3,834,000	하나은행	1,021,000
조흥은행	95,000	신한은행	900,000
외환은행	452,500	제일은행	145,000
농 협	1,185,000	기업은행	395,000
우 체 국	35,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쉼터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지역아동센터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1,825,000		
지원금	노동사목회관	2,0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1,538,860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5,363,860	잔액(이월금)	10,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9. 09 / 제39호

펴낸날 2019. 9. 16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참 소중한 사람"

지면을 통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난 교구 하반기 인사 발령으로 이주사목위원회에서 소임을 하게 된 이광휘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교님의 말씀을 성령의 이끄심이라 믿으며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순명합니다.

부임 후 처음 방문한 곳은 이주민 모자 쉼터의 한 아기의 돌잔치였습니다. 돌잔치에서 엄마의 소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특히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 익명의 어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14세기 영국의 신비주의자였던 노리치의 줄리안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내 작품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하느님이다. 보아라! 나는 모든 것 안에 있다. 보아라! 나는 모든 것을 행한다. 보아라! 나는 결코 내 작품에서 손을 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떼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나는 태초부터 정해놓은 그 목표를 향해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끈다. 그러니 무엇이 잘못될 수 있겠느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작품에서 결코 손을 떼지 않을 것이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잘못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만날 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고, 타인들의 반대를 받기도 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만나 볼 때 마다 그분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며 구원으로 이끌고자 원하시는 참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이주사목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마음가짐을 청해 봅니다.

- 1)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지기를 청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약자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청해야 합니다.
- 2) 주님의 힘에서 오는 능력,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어 일하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 반대와 타협의 목소리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내기를 청합니다.
- 3) 저희가 하는 일은 분명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하느님에게서 보상받고 사랑 받는 일이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수행해 나가기를 청합니다.
- 4)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일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사람을 살리는 일(루카 5,4 참조)에 함께 해 주시고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그러하셨듯이 저희 이주사목위원회와 모든 가족들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순교 성인들의 그 믿음과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 광 휘 베드로 신부

공동체 소식



공지사항 사제 인사 발령*

지난 8월 사제 인사 발령으로 이주사목위원회에 이광휘 베드로 위원장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사목활동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국가별 공동체 연합 가족캠프 소식*

남미, 중국, 몽골 공동체의 가족들과 함께 8월 17~18일 가평으로 연합 가족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폭염 속에 시원한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는 잠시 잊어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이다보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3개 국가 출신 가족들이 함께 다녀온 여행이었기 때문에 더욱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캠프 소식*



8월 13~14일 16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들 자연 학교로 여름방학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자연 체험 놀이, 오감 수업, 농부 체험 등 일상생활에서 하기 힘든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잠시 반납하고 오로지 자연과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남학생들이 많아 활동적인 시간이 필요하였는데 남창현 신부님께서 적극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 빛났던 캠프였습니다. 마고네 어린이들도 무척 즐거워하여 좋은 추억을 갖고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왔습니다.

상호문화센터 소식*

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이수제 한국어교육반이 8월까지 수업을 마치고 9월부터 3학기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수준별 4개 반을 (2~5단계) 운영하고 100여명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비록 한 학기가 3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이 정이 들어 마지막 수업 일에는 간식을 함께 먹으며 아쉬움을 달렸습니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단지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도 공유하고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지난 8월 30일에는 외국인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은 소통이 더 필요한 외국인 부모님들을 위하여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기 성교육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성적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성장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아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응해줄 것과 아이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설명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 교육



블랙라이트체험



지진대피훈련

위원회 미사 및 행사 공지사항 소식*

9월에는 이주사목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미사와 행사가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사회적 약자 미사

일정 : 9월 26일 목요일 19시

장소 : 명동대성당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주교들에게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사회의 변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은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연대하여 '길을 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동행'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7시 명동성당에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② 이민의 날 행사

일정 : 9월 29일 일요일 13시 30분 ~ 16시

장소 : 명동대성당

내용 : 미사, 음식 나눔, 공연

한국 천주교회는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목적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민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의 날을 5월 1일(주일인 경우)이나 그 전 주일에 지내 오고 있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9년부터 '세계 이민의 날'을 9월 마지막 주일로 이동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보편 교회에 맞추어 한국 교회도 주교회의의 2019년 춘계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9월 마지막 주일에 '세계 이민의 날'을 지내기로 하였습니다.